진관사 수륙재, 위로와 희망 전하다

개건 626주년 국행수륙재 봉행돼
9월 1일 시작, 10월 19일 회향식
순직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추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선언
진우스님 "세계인의 유산이 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관사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2024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륙재 낮재에서 어산범패스님들이 천수바라를 하는 모습.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개건 626주년을 맞아 설행한 2024년 국행수륙재(국가무형문화유산)가 회향됐다. 이 자리에서 진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선언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진관사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수륙재 개건 626주년 기념 2024 진관사 수륙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올해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우리 모두를 위해'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49일간 설행됐으며, 7번의 초청 법문을 통해 사부대중은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진관사 사부대중은 수륙재 기간 순직공무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으며,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호국의 꽃인 무궁화를 전통 지화(종이꽃)로 만들었다. 진관사 사가독서당에서 수학했던 집현전 학사 6분의 추모재도 올렸다.

회향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여해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집현전 학사, 전쟁 희생자 등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특히 이날 회향식에 앞서 진관사는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공식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임돈희 진관사 수륙재 세계무형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동국대 석좌교수)은 진관사 대중을 대표해 선언문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진관사는 626여 년 동안 국행수륙대재를 행하고 있다. 조선 왕실이 나서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고 상처받은 백성을 위로하는 축제"라면서



순직 경찰관들을 기르는 위패가 전달되고 있다. 이날 수륙재에서는 순직 제복공무원을 기리는 축원 등이 이뤄졌다.

"이제 지구촌화하는 세상에서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고 상처받는 인류를 위해 축제를 행하고자 한다. 이에 진관사 수륙대재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 시키어 위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진관사 수륙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고 국가유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적 고유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수륙재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수륙재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통해 세계인의 문화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질병과 전쟁,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무주고혼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국행수륙재 봉행은 그 자체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후원기금 3500만원과 쌀 3000kg을 전달하고 있다.

기대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행수륙재 정신을 되새겼다. 법해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 봉행 정신은 종교와 인종 그리고 이념을 넘어 대립과 분쟁에서 벗어나는 소통과 화합의 진정한 가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우리 모두를 위해'라는 주제로 자비 대도량의 문을 열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한다는 자리이타 정신을 마음에 화두처럼 새기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륙재 첫 법문을 '나라의 별이 되신 분들을 위한 갑진년 축원기도'로 시작됐다"면서 "묵묵히 공무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신 애국자들을 위한 축원의 자리는 삶의 환희로 가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 내외빈들은 일주문 밖 시련소로 이동해 태조 이성계와 순국선열 등의 영가를 맞이 하는 시련의식을 진행했으며, 영가를 경내로 모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등 참석대중이 시련의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차를 올리는 대령, 영가를 청정케 하는 관욕의식이 이어졌다.

점심공양 이후 이어진 수륙재 회향 낮재는 신중들을 불러 도량을 수호하는 신중작법, 영산회상을 표현한 괘불을 이운해 도량에 거는 괘불이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 설법을 재현한 영산작법 의식이 진행됐으며,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10월 20일 이어진 수륙재 회향 밤재는 수륙연기, 사자단, 오로단, 상단소청, 중단소청, 하단소청, 상단권공, 중단권공, 하단시식, 봉송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가 조상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삼각산 진관사 경내에 총 59칸의 수륙사를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 의례다. 수륙재의 정점은 마지막 칠재로 낮재(19일)와 밤재(20일)로 나누어 이틀 동안 지낸다.



"佛法 잘 배워 어리석은 마음 개선하라"

성파 대종사 수륙재 회향 법문
"수륙재 설행과정 자체가 법어"
땅 가물 듯 정신 피폐해져 문제
"참여 공덕으로 '九龍'이 되라"

"국가무형문화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조선 왕실 차원에서 설행했던 불교의례라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올해도 49일 전부터 모든 사부대중이 지극 정성으로 재(齋)를 봉행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하게 법문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설행해온 과정 자체가 법문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10월 19일 서울 진관사에서 봉행된 '2024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 낮재에서 증명법사로 법상에 올라 진관사 국행수륙재 설행 공덕에 대해 설했다.〈사진〉

성파 대종사는 조선시대 진관사에서 열렸던 국행수륙재를 복원·재현해 매년 봉행해 온 진관사 대중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방세계의 시방(十方)이란 동·서·남·북 사방(四方)과 북서·남서·남동·북동 사유(四維)에 상·하를 포함해 10가지 방향을 나타낸다. 모든 세상의 유주무주 고혼을 다 불러서 이고 득락하도록 하는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인류사회에 복락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행사"라고 상찬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나 마약, 음주 등 사회에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지적한 성파대종사는 "이런 문제가 배고파서 생기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신이 피폐해져 생기는 문제들이다. 현대사회 사람들의 정신은 가뭄으로 인해 갈라진 땅바닥 마냥 말라서 갈려졌다"고 경책했다.

그러면서 성파 대종사는 〈발심수행장〉의 '누구나 배고프면 밥을 먹어 주린 창자를 채울 줄은 알지만,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共知喫食而慰飢腸 不知學法而改癡心)'는 구절을 인용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울 것을 당부했다.

대종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서 채울 생각은 하지 못한다"면서 "여러분은 불법(佛法)을 잘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간에 사건사고가 많다. 너무 바깥만 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의 발 밑에 엉덩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며 '조고각하(照顧脚下)'의 가르침을 전했다.

성파 대종사는 두 눈·콧구멍·귓구멍 등 인체의 아홉 구멍을 설명하며 "동양인도 흑인도 백인도 아홉 구멍을 잘 써야 한다. 아홉 구멍을 잘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했다.

"동양에서 아홉 용, 구룡(九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개천에 엎드린 이무기가 되겠는가, 여의주를 얻어 구만리 장천(長天)을 호령하는 용이 되겠는가"라고 질문한 성파 대종사는 "오늘 국행수륙재에 참석한 대중은 구룡이 될 수 있는 인연공덕을 얻었음을 알라"고 설했다.

신중일 기자



